

202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6	5	7	3	8	5	9	4	10	5	11	3	12	3	13	3	14	5	15	3	16	1	17	2	18	4	19	1	20	1	21	2	22	5	23	5	24	2	25	1	26	4	27	5	28	2	29	3	30	1	31	4	32	2	33	4	34	3	35	5	36	2	37	4	38	1	39	2	40	4	41	4	42	3	43	1	44	2	45	1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가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선생님께서 수정체에 대해 설명해 주셨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지식을 환기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청중에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라고 묻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발표자는 청중에게 눈 초점 운동을 같이 해 볼 것을 권하고 ‘어떠신가요? 눈이 좀 시원해지셨나요?’라고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④ 발표자는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고 눈에 피로를 느끼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청중에게 도움을 주고자 발표를 한다며 발표 내용 선정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⑤ 발표자는 대한안과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와 대한시과학회의 누리집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내용을 마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보기>는 섬모체근과 결이 인데, 수정체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발표자는 ㉠에서 자료를 제시하면 먼 곳을 볼 때에는 섬모체근이 늘어나 결이 인다가 팽팽한 상태가 되어 수정체가 납작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기>는 ㉠에서 활용된 것이다.

3.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발표를 들은 학생은 같은 대상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발표를 들은 학생은 수정체를 모양체라고도 하고 결이 인대를 친대라고도 한다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④ 발표를 들은 학생은 눈 초점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다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하루에 10회 이상 눈 초점 운동을 해 봐야겠다고 눈 초점 운동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출제의도] 글에 반영할 글쓰기 계획을 파악한다.

(가)에서 시철의 개선을 통해 주차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가)의 2문단에서 구청 측은 백화점 방문 차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으로 인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② (가)의 2문단에서 구청 측은 백화점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구청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백화점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구청 측의 협조

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당부했다. ④ (가)의 3문단에서 백화점 주변 교통량과 정체 시간을 분석한 교통 연구소의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보기>의 초안과 달리, ㉠에서는 자료의 정보 중 주말에 백화점으로 유입되는 차량 수가 백화점의 주차 수용력을 초과한다는 점을 원인으로 먼저 제시하고 주차장의 추가 확보라는 해결 방안을 뒤로 재배치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부분은 없다. ② <보기>의 초안과 비교해 ㉠에서 삭제된 정보는 없다. ④ <보기>의 초안에서 두 문장으로 제시했던 정보를 ㉠에서는 순서를 재배치해 한 문장으로 제시했다.

6. [출제의도] 담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이해한다.

[E]의 구청 측은 ‘구청 주차장 개방’이라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것은 아니며, 수용한 요구 사항에 상응하는 조건을 직접 요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A]는 백화점 방문 차량 증가로 인해 주차면의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는 ㉡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측에 주차장 10부제 운영이라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② [B]는 ㉢의 백화점 방문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점, ㉣의 백화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아파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다는 점을 문제 상황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③ [C]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 백화점 내부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 백화점의 옥상 주차장을 사례로 들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D]는 ㉥의 백화점 외부 새로운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 ○○ 유수지 주변 공터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상대측에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묻고 있다.

7. [출제의도] 발화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는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교통 혼잡 유발 가능성이 있는 상대측이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버스 노선 증설이라는 요구 사항을 기존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 조정으로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⑥는 구청 주차장으로 차량이 몰릴 수 있다는 상대측이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앞서 언급한 백화점 방문자의 주차 요구 면제라는 요구 사항을 주차 요금 할인으로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8.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반영 여부를 파악한다.

학생이 작성한 초고에 훈련을 통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실현의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초고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② 학생은 초고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이 학습 능력이나 업무 능력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논문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③ 학생은 초고에서 국내의 한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그 이전보다 월등히 나아졌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④ 학생은 초고에서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A]에서는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정보를 담아내는 것인데, 가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기>의 (나)에서는 비교, 대조, 분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유형적 사고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의 (나)를 활용하여 [A]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집한 자료를 체계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을 쓴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핵심 역량이라는 내용을 통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부의 땅방울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를 통해 직유법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를 통해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출제의도] 사동 표현의 특성을 이해한다.

ㄴ. ‘기리다’는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사동 접사가 붙어 있지 않다. 반면 ‘날리다’는 ‘공중에 띄워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사동 접사 ‘-리-’가 붙어 있다.

ㄷ. 특정한 상태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의 경우 사동 접사의 결합에 제약이 있기도 하다. ‘짜우다’, ‘답다’는 모두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동사이다.

[오답풀이] ㄱ. ‘눅다’는 어간 ‘눅-’에 ‘-추-’를 결합하여 ‘눅추다’와 같은 파생적 사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받다’는 주거나 받는 뜻을 가진 동사에 해당하여 사동 접사가 결합되지 못한다.

ㄴ. 어간이 ‘ㄹ’로 끝나는 동사의 경우 사동 접사의 결합에 제약이 있기도 하다. 그 예로 ‘던지다’와 ‘견디다’를 들 수 있다.

12. [출제의도] 국어 자료의 사동 표현을 탐구한다.

‘들이습더니’는 사동 접사 ‘-이-’가 결합된 파생적 사동의 예이다. 이를 동사적 사동으로 바꾸어 표현하려면 어간 ‘들-’에 ‘-게 후다’를 붙이면 된다. ‘드레학’는 잘못된 사동 형태인데, 자음 ‘ㄷ’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에 후-’를 붙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자음 체계를 참고하여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강릉[강릉]’을 발음할 때에는 ‘ㄹ’이 ‘ㄴ’으로 바뀐다. ‘ㄹ’과 ‘ㄴ’은 모두 치조음이므로 조음 위치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조음 방법은 유음 ‘ㄹ’에서 비음 ‘ㄴ’으로 한 번 변한다.

14. [출제의도] 관형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은갓’은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관형사는 문장에서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다. 그 예로 ‘그’, ‘이’, ‘은갓’을 들 수 있다. ② ‘정해진’, ‘있는’, ‘방황했던’은 모두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③ ‘그’, ‘이’는 모두 지시 관형사가 관형어 역할을 하므로 앞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가리키며 뒤에 있는 말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④ ‘나의’와 ‘사춘기의’는 각각 대명사와 명사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여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15. [출제의도] 합성어의 형성 과정을 탐구한다.

㉠은 동사의 관형사형 ‘이른’과 의존 명사 ‘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만들어진 합성어의 품사는 부사로, 뒤 어근의 품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은 동사 어간 ‘감-’에 동사 ‘짜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지 않다. ㉔은 부사 '바로'에 동사 '잡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우리말의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에 맞다. 만들어진 합성어의 품사는 동사로, 뒤 어근의 품사와 일치한다. ㉕은 동사의 관형사형 '건널'에 명사 '목'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만들어진 합성어의 품사는 명사로, 뒤 어근의 품사와 일치한다.

**[16~21] (주제 통합) (가) 김도균, 「호펠드의 권리 범주」, (나) 김경오 외, 「의사설과 이익설」**

**(가) 김도균, 「호펠드의 권리 범주」**

호펠드는 권리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권리의 기본 범주를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청구권은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X는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유권은 X가 Y에게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행하지 않거나 행할 법적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권능으로서의 권리는 X가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X가 Y에게 법적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는 것이다. 넷째, 면제권은 X에게 C라는 법적 효과를 야기할 권능을 Y가 갖고 있지 않다면 X는 Y에 대하여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법적 면제를 가진다는 것이다.

**(나) 김경오 외, 「의사설과 이익설」**

근대 이후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의사설과 이익설의 대립이 지속되었다. 의사설을 지지하는 하트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다. 그런데 의사설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이익설을 지지하는 라즈는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관계로,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익설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이익의 수혜자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가)는 누가 무엇인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문장에서 권리를 4가지 기본 범주로 제시하고 권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나)는 권리의 근본적 성격의 의사에 의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는 의사설과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이익설을 소개하고 어떤 점에서 이들이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는 특정 기준에 따라 권리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정치적으로 올바른 권리 개념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 않다. 권리의 의미, 권리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권리론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고 있지만 (가)는 권리론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 권리론의 발전 과정을 찾을 수 없다. (나)는 권리 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하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다.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 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다. X가 Y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하는 것도 권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하트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③ 하트는 의무 이행을 면제하는 것은 권리자의 권능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④ 라즈는 이익설을 주장하므로 타

인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고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라즈는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X가 Y에 대하여 A를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A를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Y는 X가 A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웃의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그 이웃은 내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다.**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가령 사람이 동물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사설이 의무가 있는 곳에 권리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풀이]** ② 의사설은 권리란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의한 선택이라고 본다. ③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④ 이익설은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⑤ (나)의 마지막 문단을 통해 이익설의 난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㉓는 다른 누구의 권능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또한 ㉔의 보장과 관련된 의무를 국민이 취하지 못할 권능이 없다고 설명된다. 따라서 호펠드라면 ㉔을 면제권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면제권은 Y가 X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할 권능 없음'과 대응 관계에 있다. 하트라면 ㉔을 자신의 권리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왜냐하면 하트는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호펠드라면 ㉔을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라즈는 ㉔을 권리로 승인한다고 말할 것이다. ③ 국가에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져 ㉔을 권리로 승인하는 것은 라즈의 입장이다. 하트는 국민이 ㉔에 권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㉔을 권리로 승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④ 호펠드라면 ㉔을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다. 하트라면 이익 차원에서 권리를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⑤ 호펠드라면 ㉔을 면제권으로만 설명할 것이다. ㉔을 권리자와 이익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21.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②의 문맥적 의미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이다. **[오답풀이]** ①, ④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의 의미이다. ③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의 의미이다. ⑤ '상태가 되는 사람이 거리낌이 있어 행동하기가 조심스럽고 거북하다.'의 의미이다.

**[22~26] (갈래 복합) (가) 김득연, 「산중잡곡」, (나) 권섭, 「영삼별곡」, (다) 이수광, 「침류대기」**

(가) 김득연, 「산중잡곡」 총 49수의 연시조이다. 자연 속에서의 소박하고 한가

한 생활, 계절에 따른 자연의 아름다움 등을 통해 자연에 묻혀 사는 풍류와 멋을 노래하고 있다. 작가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곧 '무릉'이고, 자신이 '무릉인'이라는 발상은 선비들의 은일(隱逸)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시적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권섭, 「영삼별곡」**

이 작품은 영월을 출발하여 삼척에 이르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 기행가사이다. 여행 도중의 수려한 풍경에 대한 체험과 이에 대한 흥취가 잘 나타나 있다. 개인의 순수한 여행 체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여행 자체의 감흥을 표현하고 있다. 시상의 안배와 조절, 섬세한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 우리말 구사 등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다) 이수광, 「침류대기」**

작가가 창덕궁 근처에 있던 유희경의 거처인 '침류대'를 방문해 주변의 경치를 보고 생각한 바를 기록한 글이다. 침류대가 있던 곳은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해 유희경은 여러 문인들을 이곳에 초청해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인들은 침류대의 아름다움에 대해 시나 산문을 남겼는데, 이 글은 그 중의 하나이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접하며 이를 통해 동양적 이상향을 연상하는 발상은 진정한 미의식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22. [출제의도] 작품의 시어와 시구를 이해한다.**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는 자연 속의 생활에 만족하며 풍류를 즐기는 것이다. (가)에서 화자가 정신적 수양을 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며, 고뇌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자연 속에서 유희자적하며 '한가히 앉아' 있다. '풍월'과 '연하'는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조음이 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는 '풍월'과 '연하'로 둘러싸여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며, '산중'도 마찬가지로 자연을 즐기는 공간이다.

**2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가)와 (나)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의 <제14수> 종장에서 '이 몸이 또 어떠하뇨'라고 묻고 '무릉인인가 하노라'라고 답변하며 자연 속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외탄 마음', '알내', '고개' 등으로 공간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대저 산악을 일야의 혼든' 등과 같은 과장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4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24.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B]에서 화자는 일상적 생활 공간을 벗어나 여행을 하다가 체험한 풍경을 보며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B]의 화자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골짜기 안에 가득한 붉은 노을의 아름다움을 이상향의 이미지와 관련지어 자신을 '무릉인(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에 빗대고 있다. ③ [B]의 '진 때의 숨은 백성 이제와 보게 되면 /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리니'와 [C]의 '수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있다는 그 진나라 사람도 만나 보겠군'은 '도화원기'에 언급된 진나라 사람들의 내용과 연결하여 [B]의 화자와 [C]의 글쓴이가 자신들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④ [C]와 [D]는 모두 시냇물에 붉은꽃잎이 있는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⑤ [B]에서는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리니'라며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다. [D]에서는 유희경의 생활 공간인 침류대 주변 풍경을 '옛날 사람이 일련

는 무릉도원이라는 곳도 여기보다 낫지는 않을 듯하다.'라며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다.

**25.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를 이해한다.**

(나)의 화자는 외딴 마을에서 꿈, 호랑이 같은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칼을 빼어 곁에 놓고 불안하게 밤을 새우고 있다.

**[오답풀이]** ㉓ 화자는 시골 마을 인가의 봉당에 잠자리를 마련한 상황이다.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으며 탄식하는 내용은 없다. ㉔ 화자는 고개에 올라 끝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한다.**

㊸은 침류대 주변의 경지에 감탄한 글쓴이가 유신의 사례를 거론하며 아름다운 경지 속에서 생활하는 유희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앞부분에서 유희경이 글쓴이에게 자신의 누대를 방문할 것을 청하는 내용으로 볼 때, 유희경은 타인을 배제하고 은밀하게 자기 혼자서만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사람은 아니다.

**[오답풀이]** ㉒ 이동을 하다가 '앞내'에 빠진 화자는 젖은 옷을 '별벌'에 쬐어 말려 입고 있다.

**[27~30] (기술) 이석호, 'C로 쓴 자료 구조론'**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정렬된 자료에서는 특정한 정보를 탐색하기가 수월하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저장할 경우 정렬된 자료는 정렬되지 않은 자료보다 유용하다. 자료를 정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최악의 경우 모든 원소들 간의 비교가 일어날 수 있다. 병합 정렬은 정렬하려는 자료를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반복 분할하여 정렬하는 방식이다. 큰 집합 하나를 정렬하는 것보다 작은 두 개의 부분 집합을 정렬하는 것이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수 정렬은 원소들의 각 자릿수를 확인하여 정렬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정렬 방식은 정렬하려는 자료들의 초기 나열 상태에 따라 효율성이 다르다.

**27.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파악한다.**

2문단에서 삽입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삽입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병합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정렬하는 과정이 반복된다고 하였다. 삽입 정렬과 병합 정렬 모두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다.

**[오답풀이]** ㉑ 2문단에서의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한다고 하였다. ㉒ ㉓ ㉔ 모두 원소의 개수가 늘어났다면 정렬된 집합을 만들기 위한 연산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㉓ ㉔과 ㉑에서는 정렬하려는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지 않는다. ㉔ 원소들의 자릿수에 따라 모듈로 연산을 반복하는 방식은 ㉑이 아니라 기수 정렬이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집합 {564, 527, 89, 72}의 경우 삽입 정렬을 사용하면 {564와 527의 비교(1번)}→{564와 89의 비교, 527과 89의 비교(2번)}→{564와 72의 비교, 527과 72의 비교, 89와 72의 비교(3번)}가 일어나 시간 복잡도는 6(1+2+3)번이다. 병합 정렬을 사용하면 {564}, {527}, {89}, {72}로 분할한 뒤 '{564}와 {527}의 비교(1번), {89}와 {72}의 비교(1번)}→{527, 564}와 {72, 89}의 비교(2번)'이 일어나 시간 복잡도는 4(1+1+2)번이다.

**[오답풀이]** ㉓ 집합 {0, 3, 6, 34, 72, 89, 527, 564}를 삽입 정렬을 사용하여 정렬하는 경우, 2문단에서 '정렬된 부분과 정렬할 원소를 비교하여,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였으며 3과 3의 비교(1번) 후 순서를 유지하고, 3과 6의 비교(1번) 후 순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7번의 비

교가 일어나 시간 복잡도는 7번이 된다. 집합 {0, 3, 6, 34, 72, 89, 527, 564}의 경우 병합 정렬을 사용하면 12번이 된다. ㉔ ㉕와 ㉖ 모두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는 백의 자릿수이다.

**29.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기수 정렬은 원소들의 각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1차 정렬에서는 일의 자릿수의 숫자, 2차 정렬에서는 십의 자릿수의 숫자, 3차 정렬에서는 백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한다.

**[오답풀이]** ㉑ 564는 일의 자릿수의 숫자가 '4'이다. 34는 일의 자릿수의 숫자가 '4'이다. 따라서 564와 34를 큐4에 넣는다.

**3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병합 정렬은 정렬하려는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반복 분할한 후 다시 병합하며 정렬한다. 원소의 개수가 적은 부분 집합을 병합하며 정렬하는 것이 전체 원소를 정렬하는 것보다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8개의 원소 전체를 대상으로 정렬하는 것보다 부분 집합으로 정렬할 때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

**[31~33] (현대시) (가) 이용악, 「하나씩의 별」, (나) 유치환, 「귀고」**

**(가) 이용악, 「하나씩의 별」**

(가)에는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유랑민과 화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고향이 아닌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 이들이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함께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변화기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유치환, 「귀고」**

(나)에는 어른이 된 화자가 고향집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떠올리는 유년 시절의 기억과 향수가 드러나 있다. 화자는 과거 고향 마을의 풍경과 추억을 떠올리며 찾아가고,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께 절을 하고 어머니 옆에서 책을 보는 모습을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3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 '화물 열차의 / 검은 문'은 고단한 현실에 놓인 유랑민과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며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푸르른 바다'는 고향을 떠나던 사람들이 창밖으로 바라본던 장면을 떠올린 것으로, 서러운 정서와 연결되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푸른 송백'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㉑ (가)에서는 '별'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㉒ (가)와 (나) 모두 대화체와 독백체가 교차된다고 보기 어렵다. ㉓ (가)에서는 1연의 마지막 구절이 4연의 마지막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나)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㉔ (가)와 (나) 모두 어조의 변화가 시상을 전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32.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화자는 유랑민들이 귀향하는 상황과 자신이 고향이 아닌 서울로 가는 상황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변화기 현실의 불안감을 복합적인 정서로 드러내고 있다. 3연의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를 고려할 때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가 회한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㉓ (가)에서 화자가 유랑민들과 함께 열

차에서 쳐다보는 '별'은 저마다의 희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㉔ (나)에서 화자는 고향의 풍경을 보며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이해한다.**

[A]는 유랑민들이 과거에 고향을 떠날 때의 장면을 화자가 떠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골짜 골짜'는 그들이 서럽게 창밖으로 내다보던 풍경을 의미하므로 떠나는 이의 슬픔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B]의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기뻐처럼 다정하고'를 통해, '하늘'에는 고향에 돌아온 화자의 반가운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㉑ [A]의 '거리거리'에는 유랑민들이 과거에 고향을 떠날 때의 장면을 화자가 떠올리는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B]의 '신작로'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낯설음이 내포되어 있으나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㉓ [A]의 '호린 창'은 과거 고향을 떠날 때의 유랑민의 심정과 연결된다고 볼 수 없고, [B]의 '양지바른 뒷산'은 고향에 돌아온 화자가 느끼는 따뜻한 이미지와 연결되므로 시적 분위기와 대비된다고 보기 어렵다.

**[34~37] (현대소설)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이 소설은 작가의 자의식이 투영된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거리를 산책하며 보고 느낀 것을 독특한 서술 기법으로 그린 작품이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인과적 연관성이 없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는 1930년대 경성 거리의 풍경과 온갖 군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밀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작가가 고현학적 창작 방법에 따라 당시의 세태와 풍속을 세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안잠자기는 어린 시절 구보에게, 세책(賸冊)집에는 어떤 책이든 있고 또 '일 천'이면 능히 그 책을 빌려올 수 있음을 말해 준 인물이다. 따라서 안잠자기는 어린 시절의 구보에게 얘기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처음으로 알려 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㉑ 세 여학생들로 인해 구보가 어머니에게 "네—"하고 대답할 기회를 잃었지만, 구보가 그들에게 항의한 것은 아니다. ㉒ 어머니가 일각집 주인 아낙네에게 자랑한 것은 아들의 직업이 아니라 아들이 선물을 사 준 사실이다. ㉔ 아들은 어머니에게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일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했다고 했다. 따라서 구보가 어머니에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월급쟁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이 글은 이야기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사건을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 본 내용을 서술자가 전달한다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A]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B]는 구보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오답풀이]** ㉑ [A]는 어머니의 입장으로 사건을 바라보고는 있으나, 어머니가 서술자는 아니다. ㉒ [B]는 구보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바라 본 사건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 ㉓ [A]와 [B] 모두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6.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이해한다.**

구보는 차마 두 감의 가격을 묻고, 갑자기 입속만 열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㉑은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구보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구보의 만족감이 ㉠에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구보가 세우고 있는 고집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므로, 구보의 마음 씀씀이에 뿌듯해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에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머니가 주저한 것은 구보가 밤을 새워 힘들게 벌어진 돈을 받게 된 것이 미안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는 그러한 어머니의 부담감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동경 유학까지 다녀 온 아들이 월급자리를 얻기가 힘들다고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어머니의 마음이 ㉠에 나타나 있다. ⑤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방황하는 구보의 태도가 일하는 듯실게 꾸미는 걸음걸이가 그곳에서 멈추어진다고 한 ㉠에 드러나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구보가 자신의 쇠약하고 병든 몸을 언급하는 것은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따라서 격렬한 두통과 정신의 피로를 느끼며 얼마 동안을 막연히 서 있는 모습을 창작을 억압하는 일제 강점기 상황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밤을 새우면서 글을 써서 빈 돈이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소설가로 살아가는 구보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 준다. ② 창작을 위하여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를 해 볼까 생각하며 모테노로노리오를 게을리 했다고 생각한 것은, 구보가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성찰했기 때문이다. ③ 이 머리와 이 몸으로 '대체 얼마만 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인가'라고 한 것에는,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해진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밤을 새워 워던 소설책들로 인해 소년 시대에 건강이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한 것은, 구보가 자신의 건강이 쇠약해진 근원을 문학에 빠져 살았던 어린 시절에서 찾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38~42] (과학) 호흡·순환**

이 글은 산소와 이산화 탄소의 기체 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소는 신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고, 물질대사 결과 생긴 이산화 탄소는 폐로 전달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이때 산소와 이산화 탄소는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데, 혈액과 폐포,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의 기체 교환은 분압 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난다.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약 1.5%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약 98.5%는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 탄소의 약 7%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약 23%는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 형태로, 약 70%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

**3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5문단에서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 탄소는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폐포 주위의 모세 혈관에서는 탄산이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 탄소와 물이 된다고 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서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와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고 했다. ③ 4문단에서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쉽게 이산화 탄소와 결합한다고 했다. ④ 5문단에서 이산화 탄소는 주로 적혈구 내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한다고 했다. ⑤ 2문단에서 조직 내 산소 분압은 평균 40mmHg라고 했고, 4문단에서 조직의 이산화 탄소 분압은 평균 46mmHg라고 했다.

**39.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3문단에서 온도가 높아진 조직 주변 모세 혈관을 흐

르는 혈액에서 산소가 더 쉽게 해리된다고 했으므로 조직의 온도가 상승하면 산소 포화도는 감소한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40~100mmHg 구간보다 0~40mmHg 구간에서 더 많다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100%라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조직의 모세 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mmHg이고 휴식 시 조직의 산소 분압이 40mmHg이므로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100%라고 했고, A의 산소 포화도가 B의 산소 포화도보다 작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4문단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 탄소의 약 23%는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고 했고, 5문단에서 약 70%의 이산화 탄소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고 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약 1.5%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약 98.5%는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고 했다. ③ 5문단에서 이산화 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된다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조직의 물질대사 결과 생긴 이산화 탄소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된다고 했고, 정맥혈은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폐로 흐르는 혈액이라고 했다.

**4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파다 호흡 증후군은 이산화 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서 나타난다고 했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한다고 했다.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면 배출한 이산화 탄소를 다시 흡입하게 되므로 봉지에 입을 대지 않고 호흡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흡입하게 된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일산화 탄소는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감소시킨다고 한 내용과, 2문단에서 산소의 약 98.5%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헤모글로빈을 생성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반응이다. ② <보기>에서 일산화 탄소는 조직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의 방출을 억제한다고 한 내용과, 3문단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해리되어 방출된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한 반응이다. ③ <보기>에서 파다 호흡 증후군은 이산화 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서 나타난다고 한 내용과, 5문단에서 이산화 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된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한 반응이다. ④ <보기>에서 호흡 증후군은 폐에서 기체 교환의 감소로 이산화 탄소의 분압이 증가한 것이라고 한 내용과, 5문단에서 이산화 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배출된다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한 반응이다.

**42.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축진'의 사전적 의미는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이다.

**[오답풀이]** ① '홍보'의 사전적 의미이다. ② '미수'의 사전적 의미이다. ④ '필요'의 사전적 의미이다. ⑤ '배급'의 사전적 의미이다.

**[43~45] (교전 소설) 작자 미상, 「반씨전」**

이 작품은 가문의 권위를 중시하는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갈등을 폭넓게 보여 준다.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입신출세가 중시되는

분위기에서 체제는 반씨를 모해하다 질책을 듣고 본가로 보내진다. 체씨의 말을 듣고 분노한 체씨의 부친 체 승상으로 인해 위윤과 반씨 부인이 귀양을 간다. 양 부인이 죽은 후 집을 나온 반씨 모자는 위진 형제와 체씨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련을 겪지만 아들 흥이 과거에 급제하고 부마가 되면서 적대자들을 응징하며 가권을 되찾는다. 이 소설은 가문 내 갈등이 가문 간 갈등, 조정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선악의 대비를 이루며 전개되다가 신의 승리로 귀결되는 작품으로, 교전 소설 중에서 동서 간의 갈등을 다룬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흥은 위진이 양 부인의 유언을 거스르면서 체씨에게 부고를 알리려고 하자 문중의 '공문이 여자'라는 것을 근거로 '할머니의 유언을 저버리는 것이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않고 소설의 마음에도 불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부고를 듣고 온 체씨가 자신이 '특죄하여 분가에 잇기로 존고께 통신을 못'했다며 반씨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체씨가 분가에 가서 지속적으로 양 부인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볼 수 없다. ③ 반씨는 위진의 행동에 반대하는 흥을 질책한다. 반씨가 위진을 질책한 것은 아니다. ④ 문중 사람들은 위진이 체씨에게 부고를 알리고 장손의 대상을 반대하며 피신하여 더 이상 위진 형제와는 의할 수 없게 되자 귀가한다. 문중 사람들이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위진은 형에게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했고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한다. 위진이 위윤의 뜻에 따라 자신이 대상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에 담긴 태도를 파악한다.**

㉠에서 흥은 자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말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한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며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에서 위진은 과거에 체씨가 분가에 보내진 사건은 체씨의 잘못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낸 것이라고 하며, 체씨에게 부고를 전하려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에서 위진은 형님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죽지 않았고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했다는 상황을 설명하며, 흥의 말에 대해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④ ㉠에서 흥은 문중과 의견을 달리하며 피신한 숙부의 행동에 대해 '불의를 행'했다고 평가하며, 문중이 모두 귀가한 현재 상황에 대해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요.'라고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위진은 모친 양 부인의 유언을 저버리고 체씨에게 부고를 전하도록 한다. 이는 장자의 부제 사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 수직적 위계질서를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④ 체씨가 흥을 꾸짖는 것에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례 후 맹씨와 함께 집안일을 자신들의 뜻대로 처리하려는 것에서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집안 형세가 체씨와 맹씨에게 돌아가고 반씨 모자가 화를 피하고자 산중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지닌 쪽으로 가권이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